

공동체 소식



연중 제17주일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 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의 성인

- 7/31(화) :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 8/01(수) :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
- 8/04(토) :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새로 부임하실 신부님을 맞이하는 지향으로 매일 기도 바랍니다.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미사 : 8/4(토) 오전10:00,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Table with 5 columns: Day, Start, Example, Church, and Parish.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Day, Homilist, and Reader.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Day, Reader, and Lectionist.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Day, Name, and Role.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Day, Name, and Role. Rows for Friday and Saturday.

+미사시간

주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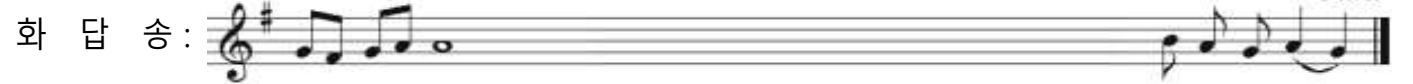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파스카 축제일인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빵을 먹으며, 육신과 영혼의 온갖 배고픔을 채우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림 묵상

부족한 음식 앞의 감사기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겸손한 모습이 평범한 우리의 눈에는 놀랍기만 합니다.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길이 엮어질 때, 오늘 복음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4,42-44
<먹고도 남을 것이다.>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6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15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 생명의 말씀

## 더 필요한 이들을 위한 나눔



지난 6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장엄 미사를 드린 후, 마을의 신자들과 함께 성체 행렬을 하였습니다. 2시간 정도 성체 행렬을 마치고 본당으로 들어올 때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4년 정도 살았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박이 양철 지붕과 부딪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변이 점점 까만 물체로 덮여갔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니 아주 작은 까만 돌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날 저희 지역에 있는 '불의 화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용암과 암석 파편 그리고 화산가스가 한 덩어리로 뒤섞인 '화산쇄설류'라는 잿빛 폭풍이 화산 주변의 마을들을 덮쳤습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대피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지구에 있는 옆 본당의 공소도 큰 피해를 받아서, 당일 그 본당 신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자마자, 저녁 미사 전 급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을 모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구호 물품들이 모일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단 2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9대의 픽업트럭이 가득 찰 정도로 식료품, 의류, 의약품 등의 물품이 모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호 물품들을 직접 그 본당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정 때쯤, 신자들과 돌아오면서 문득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오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정성 어린 봉헌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모든 이가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넘치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인 과테말라에 살면서 구호 물품을 모으는 순간에도 저는 '과연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봉헌할까?'라는 현실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가진 것이 적다하더라도 진실 된 작은 정

성들이 모여 예수님을 통해 넘치는 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날 저는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 한 병을 들고 오는 고사리손부터 적은 돈이지만 운반할 때 기름값으로 써 달라는 봉헌금까지 모든 것이 더 배고픈 이들, 더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본당 뿐만이 아니라 과테말라 전역에서 이러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 이제는 재난 지역에서 물품보관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로 구호 물품이 가득 넘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꿈같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나보다 더 부족한 이들, 나보다 더 약한 이들을 위한 작은 나눔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나눔의 기적임을 깨닫고, 실제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두 손 가득 받아 든 것은  
 넉넉한 빵과 맛있는 물고기 한 조각  
 그러나  
 그들이 마음 가득 받아 든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손길  
 모두에게 공평하시지만  
 나에게서는 특별한 하느님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요한 6,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는 현재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의 서울교구학회 회원으로 가톨릭 상담심리사(1급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여러 번 다양한 모습으로 저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을 2년여 앞둔 어느 날 주보에서, '한국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취득 안내 문구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다!'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난해 까지 '상담을 통한 복음화'라는 학회의 비전에 따라 상담이론 공부와 수련 과정을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는 말 없이 따르는 마음으로 9년여 동안 순명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회사의 교우회장, 울드레야 과정, 아버지 교육, 본당의 문화분과장, 독서단, 성체 분배자 봉사를 두루두루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수동태로서의 생명이 있는 뒤에야 능동태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도 더욱 굳어졌습니다.

가톨릭 상담심리사로서 저는 내담자와 함께 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평화' 속에 있게 되는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저에 대한 느낌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편안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19-20)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오래전부터 버려던 '성서못자리' 과정에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도들은 너무나도 새로운 삶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체험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했으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짧은 기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사는 공동체'가 되었겠습니까?'

부활과 구원에 대한 믿음'은 이성과 감성을 통합하는 부단한 탐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느님은 필요하시면 또 저를 부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음을 뒤늦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즉시 주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도록 깨어 있으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로 부르시더라도 기꺼이 순명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내 친구 '베드로'를 만나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그리움의 포옹'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진민 세례자 요한 | 가톨릭상담심리사

### 교리상식



#### 묵주기도 할 때 '구원을 비는 기도'를 꼭 바쳐야 하나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구원을 비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현한 성모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과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후 묵주기도 중에 하는 영광송에 이어서 '구원을 비는 기도', 즉 '구원송'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바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묵주기도 때 구원송을 반드시 바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클.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